第287回國會
(臨時會)

國際競技大會開催및誘致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2月26日(金)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업무현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전남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위원회

審査된案件

1.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 업무현황 보고 ····· 3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전남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위원회

(09시09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제경기대회개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첫 회의 때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반갑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저를 위원회에 넣어 준 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또 각종 유치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아침에 유인물을 봐도 지금 당장 우리 국제경기유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전남 F1, 대구 육상대회, 충주 조정, 인천 아시아, 광주 유니버시아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단지 하나의 대회가 아니라 지금 우연찮게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세종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 대회들이 당연히 전 같으면 서울올림픽경기장이나 이런 데서만 열려야 될 많은 대회들이 지방 구석구석 곳곳에서 열리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SOC를 확보를 하고 경기장을 확보를 하면서 자연히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지 한 대회를 지원한다, 어느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지역에 대한 대변이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그러한 개념과 인식을 갖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F1대회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도 전해 년도 아니고 금년입니다. 금년에 국제 손님들을 모아 불러서 우리가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굉장히 국가적인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 이렇게 실시되는 F1대회 지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우리가 '국제경기 유치' 하면 대부분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 하드웨어 많이 짓는 게 사실은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외국의 관람객들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느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시종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위원 이시종 위원입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됐는데 이것을 잘 좀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저를 아마 위원회에 다 집어넣은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유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특히 장관님, 지난해 연말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속하셨던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법 그것을 금년 2월 국회 때 정부안으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정부안을 만들어 주셔서 4월 국회 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사말씀에도 배어 나오듯이 우리 국회 차원에서 각종 세계경기대회를 유치부터 끝맺음까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좋은 성적을 냄으로써 얼마나 국민들의 사기와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대회를 뒷받침하는 유치지원특위의 위원이 된 것을 위원장인 본인 자신이 대단히 영예롭게 생각하며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위원님들 한마음으로 특위를 잘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특위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

1.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09시17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한나라당의 5인, 민주당의 3인, 비교섭단체 중 1인 등 총 9인으로 소위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사 위원과 협의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2. 업무현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전남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부 기관장의 불참 사유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장께서는 이미 예정된 전라남도의회 회의에 출석 중이고, 정우택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은 해외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출장 중이시고, 김진선·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동 위원장께서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차 출장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오셨는데 그리고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유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안상수 인천시장께서 오늘 출석대상 기관장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잠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또 제가 인천 출신이니까 그 점도 고려해서 그리고 특별히 문화체육부장관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을 먼저 듣고 우리 본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조전혁 위원 팔이 너무 안으로 굽습니다.

(웃음)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인천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제경기대회특별위원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흔히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4년의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리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입니다.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특별위원회에 함께 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만 봐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걸 다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시작되는 전남F1그랑프리 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주요 대회 개최 지원 현황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또 2022FIFA월드컵 유치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캐다나에서 진행 중인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단의 선전으로 인하여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은 성공적인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조직, 예산, 법령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8동계올림픽과 2022FIFA월드컵대회 유치를 공식 선언한 한 해였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 및 2022월드컵축구대회 유치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개정하였고 또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유치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유치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2009년도에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최고의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 또 성공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제경기대회가 우리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과 유치 현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기홍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유인촌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기홍 체육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김기홍 체육국장 김기홍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7개 국제대회 개요, 정부 지원 현황,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전남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2010년부터 7년간 영암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소요 예산은 총 7380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6659억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 F1대회는 호주, 모나코, 싱가포르 등 19개국에서 연간 순회 개최되고 국가별이 아닌 팀별로 출전하며 한국 대회에는 13개 팀, 16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개최되며 소요 예산은 3330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5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총 47개 경기 종목으로 23개국에서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인물 2쪽,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 개최되며 소요 예산은 약 884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1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총 27개 경기 종목으로 80개국에서 2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45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은 2조 1589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2억 9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유인물 3쪽,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7월 초에 11일간 개최되며 소요 예산은 약 2811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951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총 17개 경기 종목으로 170개국에서 2만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 추진 중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 도시는 2010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 IOC총회에서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의 안시와 경쟁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조양호, 김진선 공동 위원장의 유치위원회가 2009년 9월 발족되어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와 함께 범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유치 추진 중인 2022년 FIFA 월드컵축구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국 선정은 금년 12월 2일 스위스 취리히 FIFA집행위원회에서 결

정될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컵유치위원회는 2009년 9월에 발족되어 한승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는 정부 지원 현황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는 유관부처 장관, 개최 도시 단체장, 조직위원장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대회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는 유관부처 장관, 강원지사, 유치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유치위원회는 대회 유치 관련 주요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월드컵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22월드컵축구유치지원위원회는 유관부처 장관, 유치위원장, 축구협회장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18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규정, 2022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유치 및 개최 준비를 위한 유치위원회·조직위원회 설립 준비 단계별 직제·정원 승인 등 적기에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 각 조직위원회 사업운영 및 경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 국비 지원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최가 확정된 국제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대회 운영역량 강화, 최상의 대회운영 시스템 구축, 우수 선수 체계적 양성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국제대회를 전 세계인의 화합의 장으로 조성하여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동계올림픽·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 역시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유치 추진체계를 가동시키고 맞춤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지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장 한승주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월드컵유치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월드컵유치위원회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거둔 바 있듯이,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임과 동시에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2월 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FIFA 집행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2022월드컵은 많은 유치 경쟁국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우리나라 축구 발전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월드컵유치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원 사무총장입니다.

김동대 집행위원입니다.

김한곤 기획홍보국장입니다.

권영대 유치교섭국장입니다.

김재범 유치신청서준비국장입니다.

함영순 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끝으로 2022월드컵유치위원회 업무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대원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한승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대원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 2022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월드컵유치위원회 조직은 작년 8월 19일 위원회 설립 이래 현재 위원회 조직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 이런 임원과 유치위원 56명, 현재 사무처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을 9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조 정부기금 30억을 확보했고, 사업외수입으로 60억 중에서 10억 원의 후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찬조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입니다.

작년 2월 2일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의향서를 FIFA에 제출한 이래로 작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심사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에 입찰협약서를 FIFA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유치 일정으로서는, 금년 5월 14일 유치신청서를 FIFA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FIFA 실사단의 실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국가 현황입니다.

현재 2018년 월드컵과 2022년 월드컵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신청 자격이 있는 3개 대륙 내지는 지역에서 10개 팀, 12개 국가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월드컵과 2022년 월드컵에 유럽 대륙과 북중미·아세아 대륙에서 영국, 네델란드-벨지움 한 팀, 러시아, 스페인-포르투갈, 그다음에 미국, 일본, 호주 해서 7개 팀이 동시에 신청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또 앞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정리가 돼서 2022년은 아세아 대륙의 차례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2022년만을 신청했습니다.

아세아 대륙에서는 물론 저희 외에도 카타르와 인도네시아가 2022년만을 단독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개최국 결정은 금년 12월 2일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FIF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2018년과 2022년 월드컵대회가 동시에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FIFA 집행위원이 24명이 있는데 이 과반수 득표로 개최국이 확정되겠습니다.

세 번째, 슬로건 및 한국 유치 당위성입니다.

슬로건은 영문으로 'Passion that Unites', 우리말로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열정'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4쪽의 로고입니다.

로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2022년만 단독 신청한 나라로서 두 사람이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을 숫자로 단순화한 모습의 로고와 축구협회 로고를 합친 것을 'BIDDING NATION KOREA'라는 영문과 함께 로고로 삼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 유치의 당위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섯 가지 포인트를 당위성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축구 인프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2002년도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로서 10개 도시에 10개의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 또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 언론 보도, 중계방송 송출에 최고속·최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소의 재정부담입니다.

국내적으로 우리는 기존의 경기장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최소의 보수·증축 비용이 소요되기 때

문에 다른 경쟁국보다 FIFA에 대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남아공화국의 경우에 2010년 월드컵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달러가 넘는 FIFA의 지원을 요청해서 받고 있고, 또 2014년에 개최할 예정인 브라질도 각 시설 신축과 증축에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FIFA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부담 문제가 현재로서는 주요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입니다.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는 수많은 주요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국제회의의 오거나이저(organizer)다 하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의 축구 대국입니다.

우리는 1986년 멕시코 대회 이래로 이번 2010년 남아공월드컵대회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 연속해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전 세계에 6개밖에 없는 그런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한 국가로서 아시아를 감히 대표할 만한 축구 강국이다, 축구 대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월드컵에 대한 열정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월드컵 사상 유례없는 거리응원 이것이 세계 축구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FIFA에서는 이 거리응원을 팬 페스트(Fan fest)라는 새로운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거리응원 문화가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도 재연이 됐고 이번 남아공에서도 이러한 거리문화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축구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월드컵 유치 신청을 다른 나라의 신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FIFA의 각종 국제대회 또 주요한 행사, 지난번에 남아공에서 월드컵 조 추첨 행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회와 행사를 계기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1월 27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스위스를 방문하시는 기회에 취리히의 FIFA 본부로 블래터 회장을 방문해서 면담을 가지신 바 있고, 또 같이 만찬을 가지시면서 FIFA 측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국·영문, 또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서 한국 유치의 당위성과 국내 리그 등 여러 가지 축구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의 홈페이지 로딩 속도가 다른 경쟁국들의 로딩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로딩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유치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은, 우리는 저희를 제외한 23명의 FIFA 집행위원별로 조용하고 내실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유치 명분과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국제행사를 계기로 또 국제대회를 계기로 해서 유치 교섭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3월 3일 영국에서 코트디브아르하고 평가전이 있고, OFC 등 주요한 국제행사, 그리고 6월 10일부터 개최되는 남아공의 월드컵대회가 주요한 유치활동 교섭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FIFA의 평가를 위한 행정절차로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드북(Bid Book)의 제출이 있고 또 비드북의 제출 전에 개최도시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초에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15개 도시에서 17개 경기장이 신청 제출이 돼 있습니다.

끝으로 유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및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이 동시에 결정되고, 유치 신청국 중에서 7개 나라가 2개 월드컵에 함께 신청하고 있는 전례 없는 경쟁구도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판세 분석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FIFA 회원국 내 분위기로 봐서 2018년은 유럽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2년 월드컵은 한국·호주·일본·미국의 4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 시에 보여준 전 국민의 단합된 결의와 열망을 이끌어내고 또한 우리의 강점을 살려 나간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드컵의 기대 효과는, 밑에 경제적인 효과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 차원을 넘어서 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총제적인 국가브랜드 제고, 나아가서는 지역·세대·계층·계파를 초월한 국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남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께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상면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면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입니다.

먼저 금일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박준영 도지사께서 참석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잠시만요, 한승주 월드컵유치위원장께서 오늘 국제핵비확산군축위원장과의 회의가 잡혀 있는가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 이석하시는 것을 허락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상면 지난 2009년 9월 17일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도움에 힘입어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원법 제정 이후 2009년 12월 15일 각계각층의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창립총회 이후 대회 관계자 숙박에 필요한 4600여 실 중 4000여 실의 숙박시설을 확보하였으며 2월 말까지 대회 관계자 숙박시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람객 편의를 위해 크루즈를 활용한 선상호텔, 캠핑촌 운영 등을 준비하고 한옥민박 등 남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보·숙박·교통을 포함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지원법 제정 이후 포뮬러원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고 포뮬러원대회 준비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대회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문화관광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경제를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륜이 높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포뮬러원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사무총장 나오셔서, 위원장으로서는 시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있고 또 중요한 의논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이미 서면으로 배부되어서 위원님들이 대강 이해하고 계십니다. 요점 중심으로 간결하게 하시면 보다 충실한 오늘 특위 회의가 될까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사무총장 박종문입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대회조직위원회의 2010년도 주요 업무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대회 개요입니다.

F1대회는 첨단기술과 거대자본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로서 금년은 19개국을 2~3주 동안 순회경기를 하면서 금년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저희 나라는 열일곱 번째로 개최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금년도 참가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공식 명칭은 국제자동차연맹 즉 FIA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로서 금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영암에 있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해서 2006년도 10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조인식을 갖고 착실히 준비를 해 왔으며 현재 공사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회에는 13개 팀이 참가해서 22일, 23일, 그리고 결승전은 24일 오후 3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대회 개최로 앞으로 7년간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8000억 원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서 조직위는 대회 관계자 및 관람객을 위한 교통·숙박 편의 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홍보하는 문화행사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대회운영기업인 KAVO는 경주장 건설, 티겟팅 등 마케팅 프로모션 등 경기 진행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주장은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대에 약 56만 평 부지에 건설 중에 있고, 200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은 약 65% 준비되어 있고 개최 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기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대책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도 제49호선에 대한 교차로의 변경 공사, 그리고 810호선 확·포장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대회 개최 전에는 완공될 계획입니다.

도로진입계획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회 종합계획을 위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종합세부계획은 현재 3월 중순경에는 완료해서 특히 대회관계자의 숙박 대책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FI 스태프 숙박시설 약 4000여 실을 확보해서 2월 말까지는 숙박시설을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관계자 외의 관람객 숙박 대책에 관련해서는 숙박 안내 시스템 등 관람객 친화적인 숙박 여건을 조성하고 크루즈를 활용한 선상호텔 운영 그리고 FI 경기장 주변의 캠핑촌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체가 예상되는 목포IC와 영산강하구언도로 경주장까지 구간은 가변차로제 버스전용차선제 등, 그리고 경주장 근접성을 위해서 임시열차 등을 운행하고 고속버스 노선 증차를 추진할 계획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현재 한 4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대학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행사·홍보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는 3월 31일 티켓 오픈 페스타를 시작으로 해서 4월에 주요 도시를 시범운행하는 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7월에 경주장 오픈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전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FI대회 기간 중에 한국의 독특한 문화 아이콘을 중심으로 결승전 식전 문화행사, 전야제, FI 위크를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에 건의 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주장과 진입도로를 위한 총사업비 3950억 중 국비 470억 원이 아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께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존경하는 황우여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적한 국정 현안과 주요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개최하여 업무현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올립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우수선수 발굴과 훈련 시스템 등 우리나라 육상 경기력 향상에 열성적으로 지원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온 시민들과 함께 201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경기장 시설과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고 수준의 대회 운영 능력을 확보해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열정적인 자원봉사와 대회 참여를 통해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품위있는 국격을 달성해서 국운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열리고 있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보여 준 한국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육상 기록경기에서도 우리도 가능하다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대구에서 우리나라 육상선수들이 세계적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온 국민이 기대와 흥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한국 육상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육성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배석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직위원회의 문동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입니다.

최삼룡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대구시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정하영 육상대회지원단장입니다.

그리고 대한육상연맹에서 지금 남상남 전무가 배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회 준비 업무보고는 우리 조직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조해녕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상세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최삼룡 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회 준비 상황 보고서에 의해서 대회 준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위원회의 일반 현황입니다.

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1실 4국 체제의 대회운영체제 조직으로 확대 전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회 슬로건은 '달리자 함께 내일로'입니다.

엠블럼은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한국으로 모이는 지구촌 화합의 축제의 장을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회 관련 직접소요예산은 운영비 1519억 원, 시설비 708억 원, 총 2227억 원으로 대회 당해연도인 2011년에 1102억 원이 집중 소요될 예정입니다.

대회 주요 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9페이지 그간의 대회 추진 상황은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분야별 추진 상황 부분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대회 준비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시설로서 대구스타디움은 2001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여러 부분에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IAAF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완·개조하고 있습니다.

조경·조명·전광판·음향·트랙·투척전용 준비운동장 등 부분별로 개·보수 설계를 마쳤습니다. 단계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3500명의 선수 및 임원이 입촌하게 되는 선수촌은 민자아파트를 활용하게 되며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및 트랙, 투척연습장이 들어가는 연습장 등을 함께 설치해서 내년 8월20일 개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마라톤 코스 및 경보 코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종래의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단선 코스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시내 도심에서 출발해서 중심가로 중복 순회하는 루프(Loop) 코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회 초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대회 홍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13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IAAF 총회의 장소가 되는 EXCO는 2011년 5월 완공 예정으로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 육상의 요람이 될 전천후 훈련시설과 실내육상경기장이 들어가는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스타디움 서편 부지에 지난 1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경기시설은 2011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 시설에서 육상아카데미가 운영됨으로 해서 육상 전문인력과 꿈나무 양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대회 홍보 활동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인 육상 종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기별·계기별로 단계적으로 홍보강화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공항 역 등 주요 지점에 홍보물과 환경장식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육상체험장 운영, 애니메이션, 육상게임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외 동포, 주한 외국인, 마라톤클럽 등 계층별 맞춤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입장권 판매는 올해 8월부터 들어갈 예정이며 시민 1경기 관람 운동, 관광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회 문화행사로 준비되는 전야제 개회식 폐막식 도심축제 등에는 문화행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과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경기 운영 역량 제고 분야는 세계 수준의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대한육상경기연맹과 함께 심판진과 운영위원 교육, 대회 연출, 최첨단 경기장비 확보, 리허설 대회 개최 등의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최상의 대회운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 및 도핑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 분야는 작년까지 1차로 2000명을 모집하였으며 올해 3000명을 추가 모집 중으로 교육 훈련 등 자원봉사자의 대회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에 대회 준비에 중요한 분야로서 급식·수송·미디어·국제방송신호 제작, 대회 안전 대책 분야 등에 대해서 면밀한 추진 일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회 안전 분야는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출입국 관리, 신변 보호, 대테러 대책 등 분야별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대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육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육상 빅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육상 종류의 유일한 국제대회로서 2010대구국제육상대회가 올해 5월 19일 야간경기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2011년 대회의 리허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1만 3000여 명이 참가해서 육상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구·경북 시도민 육상대회는 대구·경북민들이 육상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육상 축제로 시·군·구별 예선 대회와 본선 대회를 개최해서 1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국 육상경기력 향상으로 한국 육상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 최상의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의 메달 포상금 및 기록 포상금을 대폭 높이는 데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상인의 사기 진작을 높이고 한국 육상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대회 성공을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지원사항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방송매체입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spot 광고, 특집 방송 등 홍보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과 2011년 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방송매체에 육상경기가 자주 중계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주시고 기초 종목인 육상 종목의 홍보활동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요청입니다.

국제대회지원법에도 체육진흥투표권을 초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증량발행에 대하여 발행총량을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증량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총량 규제를 완화해서 증량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충주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부시장 이중갑 조정대회 개최도시 충주시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이명규 간사님, 신학용 간사님과 충주가 지역구이신 이시종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직위원장인 정우택 충청북도지사께서는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최 도시인 충주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주는 인구 21만 명에 면적 984㎢, 예산 규모는 5635억 원이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2013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FISA 회원국 130개국 중 80개국 2300여 명의 임원·선수단이 참가해서 27개 종목에 걸쳐서 열띤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본 대회의 소요 예산은 총 884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경기장 시설비가 685억 원, 조직운영 및 대회 운영비로 199억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재원은 국비로 270억 원, 지방비로 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하계올림픽 수상종목 중의 하나로서 활력이 넘치는 무동력 친환경 스포츠입니다.

조정은 유럽과 미주에서 시작이 되어서 활성화된 종목으로서 올림픽에서는 14개의 메달이 걸려 있고 위원 중에는 현역 IOC 위원이 3명이 있는 등 IOC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큰 국제체육단체입니다.

충청북도 충주는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상 도시로서 수도권 배후의 친환경적 수상레포츠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역관광 및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충북 충주로 유치키로 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쟁쟁한 유럽의 경쟁국을 물리치고 마침내 지난해 8월 31일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에는 각계각층의 역량 있는 분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는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조정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시설 구축과 두 번째는 2013년에 FISA 130개 회원국에서 많은 선수와 임원이 대회에 참여해서 국내의 많은 관람객이 조정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외의 홍보입니다.

2012년에는 본대회 개최에 앞서 Pre-event로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을 개최하도록 국제조정연맹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1년 말까지는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 관련 시설, 그리고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2012년 초 IOC하고 FISA에서 합동조사반이 조정경기장 건설과 대회운영체계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 대회 개최 한 달 전부터는 IOC 주최로 아시아 가맹국 30개국 90여 명이 조정경기장에서 올림픽예선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는 대회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두 가지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장 시설 구축 및 대회 운영 등 대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국비 270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정부 승인을 득한 국제경기대회가 원활한 준비와 함께 완벽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경기대회 지원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올립니다.

본 대회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회로 치러져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처럼 전 세계인의 눈이 대한민국으로 쏠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달리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대체하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제출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올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2014년쯤은 아시아 시대가 무르익어 가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모두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아시아의 허브도시인 인천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계속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범국가적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88올림픽과 2002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서 아시아경기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경기대회를 뛰어넘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개·폐회식 등 다양한 행사가 아시아 시대에 걸맞은 종합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총장으로 배종신 총장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입니다.

경기본부장 양의모입니다.

행사본부장 양홍석입니다.

사업본부장 임만규입니다.

방송준비단장 이규창입니다.

인천시 소속으로 대회경기장 건설을 도맡아 지원하고 있는 이정호 대회지원본부장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종신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연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배종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의 개요와 조직, 인력에 관한 부분은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

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는 2014년 9월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올림픽 수준에 버금가는 최고의 아시아경기대회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과 40억 아시아인의 우의를 증진하고 한국 체육의 전 종목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대회는 작년도까지 기반구축 단계로 하여 대회 준비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기능별로 대회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2011년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준비를 마무리하고 각종 예행연습이나 테스트 이벤트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2014년에 대회를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 준비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회 운영을 준비하고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시설을 준비합니다.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서 빠진 부분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현재 1본부 4과로 되어 있고 5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는 2007년 11월에 조직위를 발족하고 작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분야별 기능별 대회운영계획을 1차 안을 마련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계획의 구성은 13개 분야, 45개 기능, 90개 단위사업에 과제로 보면 현재 312개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회 준비를 위하여서는 OCA 등 대회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OCA 임원진에 한국 인사의 진출을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이라든지 분과위원장, 의무분과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등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4일에는 아시아경기대회 OCA 조직위원회가 최초로 인천에서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현안이 협의되고 서로 협조가 있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울러 대회 이념 등 상징물 제정을 위하여 우리 아시아 각국의 다양성과 또 발전 의지를 함축할 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 이념 및 슬로건은 작년도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이념제정위원회가 제안한 슬로건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 중에 있고 엠블렘과 마스코트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제정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운영을 위하여는 경기단체와의 협력체계를 2009년부터 구축을 해 왔고 그 외에 경기운영프로그램을 구축·수립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경기종목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장 선수촌 운영계획이라든지 정보화 사업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회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기 운영 전문요원을 양성한다든지 심판요원을 양성한다든지 각 45개국의 국가담당관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11월에 광주에서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인천에서 대회기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수행사 그다음에 각종 공연 등을 추진하고 그 외에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시설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을 제가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회 시설은 현재 경기장이 38개 종목에 40개 경기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 5개를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12개를 신설하고 그 외에 민간 시설을 8개를 활용하고 인접도시를 15개를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6000억 규모가 되고 그중에 경기장이 1조 4600억, 진입도로가 15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경기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의 북쪽이 되겠습니다. 서구에 건설되게 되겠습니다. 부지는 63만 평이 되고, 관람석은 7만 2000석, 2014년 5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

서 49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올해 실시설계를 준공한 이후에 금년 10월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종목별 경기장은 크게 일곱 군데에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학 경기장부터 강화 경기장까지 일곱 군데인데 개략도는 24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24쪽부터 한번 훑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쪽에 보시면 이러한 주요 경기장들은 내년 2월 이후에 착공해서 2013년 하반기까지 가능하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선수촌과 미디어촌입니다.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주경기장 인근에 건설되도록 되고 세대는 4500세대, 준공은 2014년 6월 정도에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1월에 착공하여 2014년 6월에 준공하도록 되겠습니다.

28쪽의 경기장 총괄도, 29쪽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장 건설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적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비가 1조 6000억 정도 경기장 시설비가 되는데 2010년도에 반영되었던 것은 678억 원입니다. 당초 최소 소요 요구로 1033억을 요청했으나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679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업 공정에 따라서 시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경기장의 적기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보상비 등이 6800억의 시비가 지금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국비 부족분을 355억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내년도에 모든 경기장을 일시 착공하기 때문에 1200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부산대회 때는 사업 초기에 국비 60%가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인천대회는 사업 초기인 2010년까지 23.7%가 지원되는 사정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아까 건의를 드렸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에 대해서도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같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조직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이십니다. 직접 하시겠다고 저한테 특별히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정의화 위원장님께서 직접 인사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공동조직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제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국제경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과 그리고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광주의 경제부시장을 했던 사무총장 김윤석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으로 홍기남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사업본부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선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2월 4일 법인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그동안에 제가 유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와 이정빈 전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중앙 부처와 KOC 등 대회 관련기관의 파견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지난 2월 23일 사무처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인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총회와 그리고 세계대학총학장회의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세계 170개국에서 2만 5000여 명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이 대회를 통해서 그 어느 대회보다도 감동적인 대회를 선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소중한 친구로 만든다면 광주는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역사상 최고의 대회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아무쪼록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대회 준비를 위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최소한 대구나 인천에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업무 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윤석 사무총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학용 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나와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 개요, 그리고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직제, 주요 사업계획, 대회 관련 국제행사, 그리고 2010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하는 전 세계의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 대회는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28회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15년 7월에 약 2주간에 걸쳐서 17개 종목, 약 170개국의 2만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2쪽의 유치 추진 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직제는 조직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광주하계U대회지원법을 제정해 주셔서 동 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월 2일 설립되었으며, 정관계 인사 중앙지방 포함하여 19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무처의 직제는 1단계로 2010년에서 11년, 2단계의 12-13년, 14-15년을 3단계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주요골자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쪽으로서 대회 준비의 특징은 총 소요시설이 80개소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신규 시설은 국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단 2개만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활용에 대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가 30%, 시비 30% 그리고 자체수입이 약 40%를 충당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부터 1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는 대회 준비의 원년으로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액션 플랜을 마련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회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을 추진하고 국내외 대회 홍보사업과 그리고 대회 위상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제2단계에서는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별 분야별 세부 액션 플랜을 시행하며, 인력과 물자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선수촌 운영 기본계획 및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회 관련 시설과 경기의 운영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종합 점검을 하며, 문화행사 및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해서 대회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경기시설 및 대회 운영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전야제와 개폐회식 등 모든 문화행사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대회 관련 주요 행사로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렉터스 포럼이라고 해서 전 세계대학총학장회의가 광주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지성들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총회가 열려서 집행위원회 선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의 대학스포츠연맹 회장 부회장단이 와서 광주에서 집행 위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FISU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2010년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대회 종합 계획인 마스터플랜과 세부 실행계획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서 금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측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양성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약 2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영어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는 현재 FISU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 사회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대회의 운영능력 제고입니다.

국제대회 스포츠는 종합대회이기 때문에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국제 스포츠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챔피언십과 세계 선수권대회를 미리 개최해서 대회 운영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간사, 이명규 간사와 사회교대)

9쪽입니다. 또한 대회 마케팅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자체수입 구조가 40%이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그리고 대회 홍보를 통한 참여 분위기 확산과 관심도 제고를 통해서 제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회의 성공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 우선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선수촌 시설계획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최고의 입지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선수촌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장시설들을 기존시설 개보수계획 그리고 신설계획들을 수립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재원세입 구조의 40%가 자체 조달 수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후원이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 측면에서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가 50%의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성은 거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기획처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기획처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국가적 과업이자 온 국민의 염원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이명규 간사님, 신학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유치위원회 조양호, 김진선 공동위원장과 장재룡 사무총장은 IOC총회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현지 유치활동 중에 있어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유치위원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상일 홍보협력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창립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5명 등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처 기구는 1총장 1차장 4처 8부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 강원도, 대한한공 등의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유치위원회 전체 예산은 362억 원으로 국비 106억, 강원도비 106억, 후원금 15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금년도 예산은 135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IOC 제출 후보도시 파일 작성, 국내외 광고·홍보비, 국제 유치홍보 활동비,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 실사 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계획입니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제23회 대회로서 대회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개최되며 개최 장소는 설상경기는 평창에서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참가 규모는 80여 개국 2만 6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종목은 스키 빙상 등 7경기 15개 종목 86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기대효과는 먼저 국가적 측면에서 88서울올림픽에 이어 한국 올림픽을 완성함으로써 스포츠 선진국에 진입하여 국제위상이 제고되며 국가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으로 국가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국민 통합과 자긍심 고양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IT·환경·녹색성장 등 최첨단 산업발전 촉진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대회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지역 동계스포츠·관광허브로 자리매김하며 개최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로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IOC 선정 절차와 경쟁도시 동향입니다.

먼저 IOC 선정 절차에 의하면 현재는 신청도시 단계로서 오는 3월 15일까지 IOC에 신청도시 파일을 제출하게 되며 이를 평가하여 금년 6월말 IOC집행위에서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되면 본격적 공식적인 유치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내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경쟁도시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독일의 뮌헨은 토마스 바흐 IOC 부위원장과 CEO 보그너, 카타리나 비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인 BMW, 아디다스, 루프탄자 등 메이저기업들이 대거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뮌헨시의 경기장 건설공약 및 여론조사 결과 독일 국민 88%가 유치를 지지하는 등 국민적인 성원도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안시는 그동안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으며 유치활동도 부진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최근 알베르빌올림픽 금메달리트스인 에드가르 그로피롱을 유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밴쿠버 동계올림픽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치위원회 발족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평창의 올림픽 관련 경기장을 방문하셔서 확고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셨고 정부지원위원회와 국회특위가 구성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였으며 강원도의회 동계특위 구성, 범도민후원회 발족,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사모 결성 등을 통해 범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밴쿠버동계올림픽, 코펜하겐 IOC총회 등 각종 국제대회 행사를 활용한 유치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시각이 가미된 평창로고도 확정하여 유치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유치 여건과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유치 여건에서 평창은 그동안 IOC와 약속한 드림프로그램 지속 추진과 각종 동계종목 국제대회 성공 개최로 평창에 대한 국제 스포츠계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최첨단 경기장과 접근 교통망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경쟁도시에 비해 컴팩트한 경기장 배치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전국민이 하나 된 유치 열망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평창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동계올림픽이 유럽과 북미에서 각각 2회씩 번갈아 개최됨으로써 2018년은 아시아지역인 평창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런 전망도 해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쇼트트랙을 제외한 동계올림픽의 경기 경력과 저변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

으나 이번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등 타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냄으로써 평창 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치 전략은 평창을 알리는 유치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에 부합하는 평창 유치의 당위성을 집중 설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상외교 활용 등 범정부적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동계스포츠의 아시아지역 확산 등 IOC위원 눈높이에 맞춘 평창 개최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부정적 영향을 비칠 수 있는 활동은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유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IOC와 약속한 드림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평창, 진전된 평창을 집중 홍보하여 경쟁도시와는 차별된 평창만의 특장점을 중점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먼저 범국가적 차원의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국회, 정부, 기업 등과 힘을 합쳐 유치위원회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며 국회지원특위, 정부지원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국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유치지원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 강원도의회, 시·군들과 협력하여 강원도 차원의 지원활동도 본격 추진하여 유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물품 지원을 위한 공식 후원사 모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규 간사,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전방위적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활동을 위해 다양한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광고물 설치 등 범국민적 유치붐 조성과 참여를 확산하고 주요 외신 대상 미디어 투어, 해외 미디어 홍보를 통해 집중적인 평창 알리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대륙별 NOC 총회 등 주요 국제대회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밖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행사도 적극 활용하고 유엔참전 60주년 관련 행사, 국제스포츠 학술강연 등 관련 기관 주요 행사와 연계 홍보활동을 하며 KOTRA,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KOICA 등 관련 기관·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치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4월 홍보대사로 위촉한 김연아 선수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IOC의 선정 절차에 따른 완벽한 준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신청도시 파일, 후보도시 파일을 작성·제출에 만전을 기하며 IOC 초청 각종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공식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내년 2월에 계획되어 있는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 실사를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경기장 시설은 13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그중 7개의 경기장은 이미 완공하였고 유치 후에 6개의 경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은 6개 시설이 필요한데 2개의 시설은 이미 확보하였고 4개 시설은 유치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사업을 비롯한 접근교통망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유치 의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IOC와 국제스포츠계에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확고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의지를 천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IOC에서는 국제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IOC위원의 직접 접촉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간접적·전략적 유치지원 활동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원외교활동 시에 친분인사를 통한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과 개인적 친분인사를 통한 간접적인 유치지원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사업비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치 소요 사업비는 총 362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106억 원입니다. 금년에 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

산이 3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추경 시에 미확보액 2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유치위원회 임직원 모두는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별한 성원을 바탕으로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학용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이한성 위원님께서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존경하는 황우여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규 간사님 또 신학용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시에 유치를 추진 중인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에 대하여 부탁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를 추진 중인 세계군인올림픽은 4년에 1회씩 개최되는 전 세계 군인들의 체육대회로 하·동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전 분야에 걸쳐 성대하게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이며 이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군인체육연맹(CISM)에는 현재 131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5년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는 현재 한국, 중국, 스페인 등 총 8개국인데 한국은 국군체육부대가 이전될 경북 문경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유치를 통해 하계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대회 참가자와 관광객의 방문과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의 유치를 위해서 제가 작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국제군인체육연맹 사무국을 방문하여 연맹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유치 의사를 전달하고 사무총장의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지난 10월 국방부에서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및 2011년 국제군인체육연맹 총회의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2011년 내년도 총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의 개최지는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군인체육연맹 총회에서 결정되며 개최지 결정을 서울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보다 전폭적인 홍보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편 2011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올해 9월에는 서울에서 국제군인체육연맹 농구대회가 개최되며 농구대회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종목별 국제대회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수시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문경시에 이전되는 국군체육부대는 국제경기 규격에 맞는 최신식 경기 및 부대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한국의 유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 유수의 국제대회를 개최한 노하우를 지닌 대한민국은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의 유치를 자신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격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부장관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군인올림픽기구는 CISM이어서 IOC나 FIFA, FISA, IAAF, FIA 등 다른 국제경기기구와 별도의 군인경기이기 때문에 큰 충돌이 없어 조금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님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학용 이한성 위원님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처음 열리는 국제경기특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답변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명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바쁜 일이 있답니다. 먼저 좀 해 달라니까 우선 하시고 다음번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유인촌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관례를 본다면 시설비가 많이 드는 대회는 운영비를 좀 적게 지원하고 또 시설비가 적게 드는 데는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고, 관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해야 되겠지요.

○이명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열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632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 501억 원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41.6%의 운영비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33%만 승인이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신학용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2002년 아시아게임에는 대회운영비를 26.7%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적게 투자된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47.6%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관례를 본다면 역대 대회 지원 사례에 준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운영비에 대해서 42%, 632억은 요청한 대로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년 전부터 많은 부분을 개선시키고 하여간 그때 선수 훈련부터 시설 여러 가지 점검은 거의 했는데 아마 운영비부분은 또 다른 그런 운영의 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조직이 잘 예측하고 끊임없이 의논을 하고 어차피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 상당부분 결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더 신축성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일단 장관님 의지가 예산 반영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의지는 너무 강해서 탈입니다.

(웃음 소리)

지금 모든 경기대회에 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현장도 거의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다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돈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위에서 의논을 잘해 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세계 손님 불러놓고 관중석이 텅텅 빌 지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내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소위 말하면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붐 조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예산 131억 삭감된 부분도 추가로 해 달라는 게 상당부분이 홍보비용입니다. 국민들이 붐을 조성해야지 내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공익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육상경기 자체에 대한 중계방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쇼프로그램이나 오락프로그램 이런 데서 육상을 주제로 한 이런 프로그램도 제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홍보비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점 장관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폭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육상은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고 또 우리나라가 반드시 개척하고 활성화해야 될 무엇보다도 중요한 종목이 육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계기로 단순히 한 번 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순히 하나 대회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전체 스포츠의 기본예산을 하는 것으로 좀 강조해 주시고, 장관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뜨거운 열정을 이번 대회를 통하여 앞으로 올림픽이며 모든 분야가 사실은 육상이 튼튼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셨으면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화관광부 예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저는 민주당에서 대구경북에 대

한 민주당의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강력하게 도와주라고 해서 국제경기특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첫 질의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지원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바로 우리가 관광과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육상만 쳐다보지 말고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IT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우수성을 함께 와서 보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홍보비용을 삭감한 데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대폭했다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한 마라톤 트랙 주변에는 상당히 친환경적인 시설물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전남 2010년 F1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F1대회는 지금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장관님께서도 이명박 대통령님 또 국회의장까지 수차례 지원을 약속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런데 F1대회가 원래 G20정상회의 한국 방문 회의와 더불어서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F1대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러한 언급이 없으며, 약속한 지원금 1130억 중에 470억이 아직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서 이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부의 의지를 한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F1조직위원회하고 원래 880억 국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도 올해 예산에 880억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됐는데, 유일하게 F1대회는 민자가 포함된 국제 모터스포츠이기 때문에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전혜숙 위원 그렇지만 전남도 자체가 재정이 약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저번에도 굉장히 정부의 의지가 참 부족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F1대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어차피 지금 몇 달 남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반시설에 대해서 장관께서 돌아가셔서 각별하게 부족한 것 지원하기로 약속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약속을 해도 국회에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현장도 가서 다 확인도 하고 얼마 전에 그러고 왔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 의지를 국회에 한 번 더 장관께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고지원이 30%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액수도 880억을 올렸는데 결국은 30%에 맞춰서 다 똑같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아마 이게 550억인가 되어 있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상면 528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528억,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장 올 10월에 경기를 해야 돼서……

○전혜숙 위원 지금 급하니까 정부의 예비비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고, 특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시종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미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 날 보류될 때 정부에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10월 2일쯤 돼서 정부가 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종시에만 너무 몰두하셔 가지고 약속을 또 잊어버리셨나, 그래서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좀 지키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4월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이시종 위원님은 이것을 특별법으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상임위에 법안을 내셨는데 지금 다른 부분

은 다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을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전 종목이 참여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 메이저대회 할 수 있는 월드컵이라든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가능하면 일반법에서 처리하자,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나 일반법으로 하나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있는 우리 법 안에 조정선수권대회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자,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작년에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일반 법안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질 없도록……

○전혜숙 위원 10월 달인데 벌써 한참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도 민심이 흉흉한데 정부가 이런 것을 약속 안 지키면 더 흉흉해 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시합에 별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F1은 자동차산업하고도 사실 연관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니아들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직결이 되니까 우리가 물꼬만 잘 터주고, 혹시 예산 부분 중에 자동차산업과 연관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문화관광 예산이 적어요, 체육 이런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데 하여간 특위도 열심히 활동해서 예산 확보를 심각히……

○전혜숙 위원 4대강 예산 조금만 절약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장님, 이 부분은 특위에서도 조금 거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 10월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경주장은 올 6월 달이면 다 완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티켓가격도 굉장히 높고 또 경주장만 있지 그 외에 호텔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거기가 생태환경이 좋은 지역인데 그거 다 준비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광주, 나주 인근지역 목포까지 전체를 활용해서 숙소도 만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위에서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상세한 보고를 또 받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조전혁 위원 4대강 예산 조금 증액되면 충주조정경기는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신학용 위원 발언권 받고 하세요.

○위원장 황우여 알겠습니다. 너무 열기가 높아가지고 제가 열기를 느낍니다.

조정대회부분도 지금 전혜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시종 위원님 오시면 상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의화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간략하게 인사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 국제경기를 상당히 많이 유치해서 정부도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무튼 유치가 결정된 곳은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요. 또 평창은 삼수인데 꼭 좀 되기를 바라고,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오찬에서도 이계진 의원이 오셨는데 대통령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튼 그 나라의 위상에도 물론 관계되고 또 좋은 결과를 내면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굉장히 좋고, 이번에 특히 동계올림픽 같은 것 보면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스포츠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데요.

박종문 F1사무총장님, 경기를 이번에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합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이 대회는 금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 국제기구와 계약에 의해서 7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7년간 매년 하게 됩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러면 경기기간은 3, 4일인데 물론 앞뒤로 있겠지만 1년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시간은 블랭크(blank)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매년 경기일정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1년마다 돌아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평상시 준비를 하면 대회진행……

○정의화 위원 대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회는 충분히 잘 된다고 보고 그게 예를 들어서 대회를 3, 4일 하지 않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11개월 반은 비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현재 트랙을 건설한 후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등급은 다르지만 여러 등급의 자동차경주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대회라든가 F3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들을 연중무휴로 경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보니까 생산유발효과도 1조 8000억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도 8600억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그 대회기간이 아닌 기간에 충분히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리고 평창유치위의 김남수 기획처장님, 아까 의원외교 말씀을 했는데 좀 중요한 말씀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유치를 해 보니까 FIS 같은 경우에는 집행위원이 투표를 하더라고요. 또 여수 유치 때도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또 보니까 각 나라의, 우리 같으면 문광부 장관님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던데 이 경우에는 투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기획처장 김남수 IOC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건 관계없이 개인의 의사대로 투표를 하는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기획처장 김남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부에서 관여하면 큰일납니다.

○정의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저희 특위 위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님들에게 다 주셔서 의원외교 활동할 때마다 가서 자그마한 인사라도 IOC 위원들 만나고 관심을 보이는 게, 제가 두 번 유치위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인사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이연택 위원장님, 아주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IOC 위원은 좀 특별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돼서 엄격히 제한이 되고, 아마 이것은 민간외교 차원이거나 저희들이 하면 대 국회 또는 대 정부 이런 공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활동을 할 영역이라거나 또 공급에 대한 의견을 실무적으로 좀 내 주셨으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기획처장 김남수 예, 유치활동 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한번 내주시고 속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신학용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인천 계양갑이고요.

아마 각 집중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로 인천 중심으로 하겠지만 또 나머지 다른 데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 장관님은 참 복도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장관으로 재직 시에 정말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금도 많이 딸 줄도 모르고, 이 여세를 몰아 가지고 정말로 준비를 좀더 잘해 주시면 재임 시까지라도—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여기에 적극적 정열과 예산 투입을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위원 사실 인천이라는 곳이 공항과 항

만이 있지만 원래 서울의 관문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자만 왔다 갔다 했지 실제로 위성도시 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인프라 같은 것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부는 다 서울로 가고, 그리고 서울이 팽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천이었는데 사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나서는 그걸 기화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별로 인천을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비교해서 안 됐지만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4년 전—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2010년—1998년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2109억 원 가운데 그 당시 약 60%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을 두고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인프라도 깔고 도시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참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인천 보니까 지금 몇 %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30%일 겁니다.

○신학용 위원 23.7% 나와 있어요. 이것 뭐 이렇게 인천을 아주 불평 부당하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은 가능하면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하자라는 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문학경기장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논의도 많이 하고 그것을 그냥 고쳐서 쓰자, 아니면 새로운 동네에 새로 짓자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액수에 차이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일부 시설은 서울시 것을 쓰자, 아직도 조금 정리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예, 저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왜 그런 말씀 드렸냐 하면 경기장이 그 270만 인천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좀 아껴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인천은 남과 북이 갈려 가지고 남쪽은 도시계획도 좀 됐는데 북쪽은 엉망이기 때문에, 경기장도 대도시에 경기장 하나 있는 데가 인천밖에 없다, 대구도 두세 개 될 거고 부산도 한 서너 개 될 거다, 그런데 인천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기회에 북부에 하나를 더 짓는 것도 정말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문광부에서…… 제가 문화관광부 소속이었으면 계속 좀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유 장관님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고마운데 이제는 그런 것 다 떠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다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요.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확실히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차질이 없도록 하여간 준비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올해도 1033억 원 요구했는데 지금 678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핍박을 한다고 할까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라도 꼭 좀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나머지 국비를 추경에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준비하는 데 차질이 많이 걸린다고 인천 조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그것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주경기장을 해 주는 것으로 문체부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인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일부 민자를 도입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3000억 원이 든다, 그러면 당연히 900억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부 민자 1000억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2000억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를 민자로 가져오겠느냐, 그러면 민자를 뺀 나머지 재정에서는 30% 지원하는 게 당연한 순서인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인천이 돈 많은 도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아마 기획재정위하고 조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F1 부분도 사실은 민자 부분을 빼고 나머지 사업비를 갖고 30%를 하니까 돈이 확 준 거거든요.

○신학용 위원 그게 해결 안 되면 이것은 헌법소원 들어갈 만한 사항이에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법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법은 저희들이 개정하면 되는 거지만 솔직히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거기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또 균형 발전, 이게 인천시민을 보면 굉장히 체육시설을 멋지게 해 주는 거니까 삶의 질에 도움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꼭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열심히 의논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신학용 위원 알고 계세요?

하기야 우리 이연택 위원장님이야 워낙 이 계통에 대부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 동계스포츠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양해 주신 장관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모태범 선수인가요? 금메달 딸 때 현장에 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닙니다. 쇼트트랙……

○권성동 위원 쇼트트랙, 그때 환호성 지르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역시 신언서판이 갖춰진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시니까 훨씬 경기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각 조직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 또 다른 위원님들 보고나 질의를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국비 지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낸 것이지만 일단은 대회 규모라든가 그 대회의 국제적인 위상, 참가 선수, 규모, 또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국제적 이미지 제고 효과 또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 기존 시설, 이런 등등을 인자로 죽 해 가지고…… 스포츠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아까 광주 위원장님도 대구에 비해서 국비 지원 규모가 약하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그래서 아예 국제경기별로 이렇게 인자를 만들어 가지고 산출을 해서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해 놓으면, 그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그러면 지역별로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인천 출신 위원님이 세 분이 계셔 가지고 인천 아시안게임은 참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의원 규모가 많고 또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 지역 출신의 유력인사가 많으면 지원을 많이 받고, 우리 강원도처럼 인구도 적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에 적게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3대 스포츠에 올림픽하고 월드컵은 꼭 들어가는데 위원장에 따라서는 포뮬러원이 3대 스포츠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육상경기가 3대 스포츠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밴쿠버 올림픽을 계기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좀더 쉬워졌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 스포츠 경기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또 금년에 대관령에 많은 눈이 내려서 자연환경도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실패하다 보니까 강원도민은 굉장한 박탈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치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에서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의지와 외교적 활동 또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태까지 여러 번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셨지만 좀더 직원들을 독려하고 지도를 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동계올림픽 IOC 위원들 여러 분도 좀 만나보고, 그래서 강원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이라든지 벌써 7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고 그런 것을 다 인정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한국이 너무나 많은 국제경기대회를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IOC 위원들한테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같이 얘기도 해 보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늘 지적되는 게 외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에도 없다가 1년 만에 확 뛰어들어 와서 그걸 가져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오죽하면 제가 밴쿠버에서 '이 평창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모든 국제대회는 앞으로 정부가 유치 안 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자마자 우리 이한성 위원님 만났더니 그 군인올림픽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사실은……

(웃음소리)

○권성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테말라에서 소치로 결정될 때 그때도 민간기업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모 임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과테말라에 가서 현지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정하기 이틀 전에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활동을 해서, '다 됐으니까 더 이상 활동하지 마라. 잘못하다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틀 전 활동을 중지했다 그럽니다. 그 바람에 3표 차이지요, 우리 기획처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기획처장 김남수 4표 차입니다.

○권성동 위원 4표 차로 결국은 뺐기고 말았는데, 이건희 IOC위원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한진에서도, KAL에서도 열심히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 현대라든가 또 GS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대기업 민간 부분에서 좀더 많은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이번 밴쿠버 끝나면 그 유치위원장님들이랑 다 돌아오시면 한번 판을 다시 해서, 아직 내년 연말 돼야 결정이 나는 거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학용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황우여 예, 의사진행……

○신학용 위원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위원께서 이 좋은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에 탈락한 게 마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는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명예를 좀 훼손하지 않으셨나, 국가원수가 돼 가지고 탈락하게끔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권성동 위원 그게 아닌데 ……

○신학용 위원 그런데 마치 그때 이야기를……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라고 그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 하게 했기 때문에 3표 차로 아깝게 탈락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말할 가치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거기에 적절히 해명하세요.

○권성동 위원 예, 해명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탓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끝까지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무 판세를 유리하게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투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음번 유치활동을 할 때는 그러지 말자는 취지로 얘기한 거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분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됐습니다. 그만……

○신학용 위원 아니지, 권 위원이 그 말에 말이야, 아무 잘못이 없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자리에서 안 된 것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3표

차로 떨어졌다 이야기했잖아요. 젊은 양반이 말이야……

○위원장 황우여 제가…… 잠깐 기다리세요.

○전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신학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위원장 황우여 위원장의 허락 없이 발언하는 거는 제가 다른 건 다 참는데 그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권성동 위원 제가, 신학용 위원님……

○위원장 황우여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의사진행발언은……

○권성동 위원 젊은 양반이라니요.

○위원장 황우여 가만히 계세요.

○권성동 위원 똑같은 동료 국회의원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 발언한 것은 우리 속기록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춘 거고, 다만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하거나 그러지 말고 더 권장해 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권성동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권성동 위원님이 발언하신 걸로 정리하고……

○신학용 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한번 보고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우여 예,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신학용 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됩니까?

○위원장 황우여 평창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혹시 동계올림픽이니까 북한 쪽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남북한이 경기도 나눠서 한다든지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남북관계 문제도 좀 한다라면서 국제적으로 하면, 세계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보니까……

동계에, 특히 동계는 우리 평창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설 규모나 적설 부분이나 또 동계의 그 활용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면성을 갖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창에서…… 저희가 지금 의욕적으로 평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인사말씀 겸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히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것은 여야, 지역에 불구하고 평창에 대한 의지가 특위 위원님들 모든 분에게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한 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기획처장 김남수 예, 저희들이 준비하겠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분산 개최라든가 공동 개최는 IOC 규정상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아, 그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기획처장 김남수 예.

○위원장 황우여 우리 그때 월드컵이나…… 아, 월드컵하고는 다르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좀 다릅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실 있게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잘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논란이 있을까 봐 제가 여쭤 보는 건데 그러면 평창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 그런 취지의 어떤 공언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왜냐하면 이미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지금 벌써 2022년까지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외에 국제경기대회를 지금 여기에서 더 신청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2022년 이후에. 그런 경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내년 안에 다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IOC 위원들한테 '아, 이 국가가 확실하게 이 동계올림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의사는 좀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위원장 황우여 그런 취지로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한성 위원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건 민간이 아니라 군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도 나

눌 때 민하고 군은 좀 별도로 하시니까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선회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이한성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기술적으로 하여간 잘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렇지만 외교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황우여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전혜숙 위원 예.

○위원장 황우여 아까 그 문제는 그만하십시다. 지금 첫날부터……

○신학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해석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잘하라고 그러려고 한 게, 스톱해라, 민간인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전혜숙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겠습니까?

○신학용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건 해 주고, 해명할 건 하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3표 차이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신학용 위원님의 공식적인 이의가 있으니까 속기록을 한번 가져와서 검토하고 이 부분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전혜숙 위원님, 그 부분……

○전혜숙 위원 시간 없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관 아까 발언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유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세계대회가. 많이 되는 과정 속에서 평창도 거기에 치여서 사실은 그 당시에 탈락된 걸로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3표 차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없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부탁드리고……

○조전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 대통령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혜숙 위원이나 우리 신학용 위원이 제 발언을 제대로 안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혜숙 위원 뭘 안 들어요, 다 들었는데.

○권성동 위원 조용하세요. 남 얘기하는데……

○전혜숙 위원 다른 위원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발언도 제대로 안 듣고 발언한다고 지금 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권성동 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갔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누가 지시했다는 얘기 안 했어요. 다만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이제 활동을 안 해도 된다, 거의 유치 분위기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언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활동 중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권성동 위원 역사적 사실인데 그러면 얘기를 안 합니까?

○위원장 황우여 자, 좀 조용히 하십시다.

지금 속기사가 한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이 나오면 속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위원장이 할 테니까 저한테 맡겨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속기록 내용을 검증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좋게 오늘 특위가 출범했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건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서구을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는 그 개최지 현장입니다.

우리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참으로 선전 분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스포츠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원동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참 감격된 심정을 지금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1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1시간 정도 후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또 이제 꿈의 금메달을 향해서 도전할 텐데 이번에 메달을 딴 선수들 또 따지 못한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무 특별위원회이니까 큰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은데 우리 국회 관례가 회의 중에는 박수를 안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박수를 정말 그분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 이벤트는 국내외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고 또 국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임과 동시에 애국심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제경기특위는 비교적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사실은 없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야 간에 협력을 통해서 국제대회 유치와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국회 안의 특위 중 특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광부나 기재부 그리고 교과부 등 다른 국제 관계 상임위원회가 국제경기와 관련된 업무협조에 소극적이거나 예산 지원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우리 특위만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야를 초월해서 아낌없는 지원에, 그래서 각종 경기가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특위의 하나의 주 임무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유인촌 장관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5월 23일에 벨기에 브뤼셀로 건너가서 정의화 유치위원장과 함께 유치활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특위 안에 지금 7개의 경기가 있는데 거기 유치위원장 또 조직위원장님 또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전문가시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눈에 띄는 것은 정의화 위원장께서 광주U대회유치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지역을 초월한 일입니다. 또 이연택 위원장께서 출신지역을 떠나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그 외에도 여러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역을 초월하고 여야가 같이 하나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U대회 유치 이후에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개최 지역에서 토론회도 열고 또 국회에 U대회지원특별법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미디어법 논란 등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특위 구성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FISU로부터 광주U대회지원특위가 조직위원회를 구성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또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경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관계법을 제대로 제 시기에 통과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트롱 FISU 사무총장과 제가 만났을 때 조직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유치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 안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FISU 사상 없는 일이다 그런 지적을 받고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출석한 김윤석 사무총장도 애를 쓰고 또 문방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다행히 지난 연말에 U대회지원법이 특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광주U대회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뒤늦게 의결이 됐습니다. 역시 이 특례조항이 명시된 법명에 광주U대회를 사실상 끼워 넣는, 추가시킨 어쩌면 편법절차 같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구성된 법안소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첫째,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등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법명을 무슨 대회다, 무슨 대회다 이렇게 열거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각 대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또 유치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법령에 어떻게 담아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왕에 있는 지원법에 5, 6개 경기를 나열해 가지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경기를 지원하는 주무 국제경기위원회로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원대회 명칭을 나열하고 또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옥외광고물 등의 지원사항을 담아서 관련 법 조항을 추

가 개정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문광부에서도 부칙에 대회 개최 기관과 특성 또 조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한시적 법으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부 장관이신 유인촌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특히 법소위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저희들도 많은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대회마다 특별법을 계속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공통된 법의 내용을 잘 담아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가 어렵냐면 처음에 유치를 할 때 국제조직에 지자체에서 가면 과도한 부담을 제시를 합니다. 항공권 다 주겠다, 잠도 다 재워 주고 기금을 얼마를 내게 되고 이게 할 때마다, 경쟁에서 이기려니까 점점점……

제가 광주U대회도 첫 번째 실패할 때, 그때는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느꼈던 게 이렇게 유치를 해서 과연 우리가 무슨 득이 있을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제시를 했는데도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편법으로 광주를 위해서 내년에, 원래는 2년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해 줄 테니까 너네가 포기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넣어 달라 이런 제안을 본부에서 할 정도로……

지금 여기 다 계십니다만 서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애초에 민자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다 국고로 그것을…… 왜냐하면 민자가 될 리가 없지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이 부분은 충당한다 하지만 결국은 안 돼서 다 국고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이번 특위에서 잘 의논하셔서, 처음에 유치를 할 때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하고 이 이상은 국가의 부담이니까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하자라든지 이런 의견을 저희들도 많이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입법기술상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든가 또 정부로부터도 이것은 전혀 예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면 몰라도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추가 개정법률안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같이 하고 우리도 법안소위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F1이고 뭐고 다 성공시켜야 됩니다. 실패하면 엄청난 국가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요구 문제입니다.

광주U대회는 빛고을 광주 창도 이래 처음 유치하는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광주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높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게 했던 현장이 바로 광주 월드컵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국내 국민들이라든가 스포츠 관계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광주시와 체육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저께 3000명 규모의 범시민지원단 발대식도 갖고, 물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함께 국제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사업예산으로 1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원 구성을 보면 출연금이 90억 원이고 국비는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어느 경기하고도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몇 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경기에 비추어 가지고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율이 대구U대회 같은 경우 50%임에 비추어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김윤석 총장께서도 지금 절감하고 계시는 것인데 원만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시급히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경할 수 있으면 추경을 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광주U대회 성공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U대회는 아직 6년이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조직위원회도 사실 다른 대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찍 꾸렸거든요. 대구가 50%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구는 한 3년밖에 운영을 안 했고요. 광주는 이미 6년 전부터 운영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의논을 했거든요. 그것은 하여간 조직위원회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F1대회에 대해서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예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최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로. 그런데 대회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라든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이나 무역협회 등 F1대회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이것이 조금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라든지 해외문화원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것은 하여간 서둘러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법률에 관한 문제를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이 될 때 장관께서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과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한성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격이 향상되고 경제력도 향상되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두는 좋은 자리에 약간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있었습니다마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야당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유치할 마당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할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말하다가 전체적인 뜻이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잘못으로 혹시 비쳐졌다면 말 구사에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권성동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 여러분들 도움을 전폭으로 받아야 될 입장에서 그 마음을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경의 군인올림픽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ISM, 이게 프랑스말이 되어 가지고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말로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CISM인데 이것이 IOC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의사결정도 본인들이 하고 IOC 위원도 전혀 모르고 군인올림픽이 열리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15년 대회 결정을 11년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회 총회를 내년에 서울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제군인올림픽기구에서 한국이 열심히 참여하고 대회도 유치해 주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위상이 좋고 제가 브뤼셀에 가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한국의 군인들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총회 유치를 계기로 거의 결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까지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에 이전공사를 완료합니다. 2011년이니까 한 4년 뒤면 운영도 잘 되고 시설은 최신의 시설이 되고 그런 최적의 상태에서 별 예산 없이, 숙박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가 추가로 되고 최근에 각 자치 단체마다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천의 양궁경기장 또 상주에 무슨 공설운동장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예산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저도 예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 자민당 정부에서 SOC 투자하느라고 막 들어붓다가 지금 국가 부채가 GDP의 213%인가 돼 가지고 그리스 다음으로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고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마당에 예산을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아마 부산아시안게임 때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하고 최근 인천이나 다른 데,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예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사이에 시설이 많이 들어섰고 또 유치해야 할 대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 지원 비율하고 지금 지원 비율하고 같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사이에 많이 지었고 월드컵도 치렀기 때문에 또 그 시설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예산을 가능하면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군인올림픽에 대해서는 이번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장관님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결의를 좀 해 주시면 큰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게 IOC하고 큰 충돌이 없습니다. 그것 좀 깊이 잘 가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수면 위로 안 올라오도록 잘 조절을 해야……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군인올림픽은 사실 IOC 위원들이 어디서 열리는지 잘 몰라요, 군인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중에 일부 선수가 군인인 사람이 올림픽 가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IOC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잠깐 우리 조해녕 대구……

지금 공식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이한성 위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님이지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예.

○이한성 위원 경륜이 높으시고, 대구시장님으로 계실 때 저도 몇 차례 뵈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 숙박시설은 민간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선수촌은 아파트를 건립해서 사용 후 분양을 하고요, 기타는 시내 호텔들을 이용합니다.

○이한성 위원 대구는 그래도 대도시니까 호텔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선수촌은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까, 시 예산으로 합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아닙니다. 그것은 민자로 합니다.

○이한성 위원 민자로 해서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조해녕 예, 사용 후 분양을 하는 거니까요.

○이한성 위원 우리 문경 같으면 그런 민간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을 수도 없고 주위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수안보라 할지, 또 충주라 할지—조정경기를 하는 충주도 한 30~40분이면 가니까—주위의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가급적 경비 지출을 줄이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이나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세계 최고 대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육상 후진국이다 보니까 스타 선수가 없고 국민적 열기가 없고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관중석 채우는 것부터 이것은 정말 제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한성 위원 예,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면……

장관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보가 많이 되면 스폰서도 좀 많이 들어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이게 상승효과가 있을 테니까 정부에서 좀 방송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대구육상선수권대회 홍보를 장관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민간투자나 찬조로 이어지고 그러면 국비 부담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이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각 조직위원회 전체가 같겠습니다마는 운영예산 중에서 홍보비는 투자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부처, 예산부처에서는 이

것을 소모적 경비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경상비로 취급을 하는 데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무슨 상가 분양, 아파트 분양을 하더라도 붐을 일으키면 빨리 분양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많이 오는 것으로 하고 구경 못 가면 좀이 쑤실 정도로 나라에서, 문광부에서 홍보를 해 주면 '이게 크게 되는구나' 그래서 또 기업체 찬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중계권 입찰가격도 올라갈 테고? 막연하지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여기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조직위원회가 많이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것이 민간 찬조와 스폰서로 연결되고 또 국비 절약으로 이어지도록 좋은 지혜가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군인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의논할 시간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위원 안녕하세요? 윤상일입니다.

저는 친박연대 소속으로 지금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모시고 앞으로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대회 유치 그다음에 개최라는 의미로 보면 평소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격하고 가장 직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준비도 중요하고 결국은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가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제가 기재위 소속으로 아프리카하고 유럽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나니까 그 대회를 치른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인촌 장관님께서 오죽했으면 "유치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더욱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치·개최 이후에 별도의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저희 월드컵 축구경기장도 사실은 상암동 정도가 아마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경기장들은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경기장으로서의 구실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또 어떤 면에는 상업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정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번 시합하고 그다음에는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는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의 요구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어떻게든지 고쳐서 쓰고 좀더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돈도 줄이고 그런 효과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일 위원 하여튼 우리 유 장관님께서 대회 유치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해 주셨듯이 정말 그것은 그 부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엉뚱한 질문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밴쿠버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아주 쾌보, 낭보를 줘 가지고 국민들한테 굉장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빙속(스피드스케이팅)의 모태범 선수하고 이승훈 선수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윤상일 위원 그런데 그 선수들이 어려서 쇼트트랙 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윤상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선수를 관리했으면 이번 빙속에서 메달 한 서너 개는 더 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 관리

가 소홀했고 지도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지금 빙속에서 2개밖에 메달을 따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잠시 해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체육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많은 대회 유치에서 육상도 그렇고 빙속도 그렇고 아니면 동계올림픽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선수 양성에 앞서 지도자 육성이 선결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체육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히딩크 감독의 예를 보면 누구나 그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메달 2개 딴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체육부문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윤상일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빨리 앞에 두고 있는 포뮬러원(F1)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국제대회가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F1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광주, 호남 지역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 개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하고 홍보가 굉장히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한성 위원님께서 숙박시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 보니까 "크루즈를 활용한 선상호텔"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총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이 선상을 이용하는 게 크루즈를 차터(Charter) 하는 겁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크루즈를 일종의 차터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가는 기존의 배 중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별도로 신설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숙박 대책은 숫자적으로 보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질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선박호텔 기능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상일 위원 여하튼 그것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사실 선상 크루즈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숙박을 제공할까 싶습니다마는 기존의 시설을 초기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방도시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아마 인력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예, 맞습니다.

○윤상일 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업무계획표에 보니까 한 4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예.

○윤상일 위원 또 하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전남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이건 경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전문성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회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염려하시는 취지를 잘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특별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내 주시면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위원회에서 발언 순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말할 거리가 없어지는데요.

아까 우리 신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

분,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인구가 아마 200만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280만입니다. 인천은 지금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3대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많이 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렇지 못합니다. 갑자기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문화 여러 부문에 있어 가지고 인프라가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하고 평행선상에 놓아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부산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회 준비 4년 전에 굉장히 많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추경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3선·4선의 중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굵직한 정치 지도자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다른 전통적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괄시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 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지금 인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력을 봐서 이야기하면 인천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에 경기장을 신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천에 땅이 부족합니다. 그것 아마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을 수 있는 땅이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전혁 위원 이게 인천 안에 있는 땅이지만 사용권은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하고 인천시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또 생각이 다른 게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시안게임이 인천 지역만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행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당연히 아시아권의 행사지요.

○조전혁 위원 아시아권의 행사이기도 하고 사실은 인천의 이름을 갖다가 빌린 대한민국의 행사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도시 간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도와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 간에 맡겨 두지 마시고, 사실 장관님 치적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국토해양부가 같이 설득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처음에는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시설물 새로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마찰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예, 국가적인 행사임을 강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윤석 위원님이 오셨는데 아직 인사 안 하셨지요?

○張倫碩 委員 인사는 지난번에 했고요, 조직위에서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래요?

장윤석 위원님 오셨으니까……

○張倫碩 委員 저희들 법사위원회가 오전 중에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행사가 있어서 제가 빠지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어서 법사위를 다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신 각급 조직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미 개최가 결정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될 대회도 많고 또 유치를 해야 될 두 가지 큰 대회도 있고 해서 우리 특위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위원들 숫자가 적어서 미안합니다.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17대 때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특위 위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대회 유치를 위해서 유럽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현장에도 가서 세계육상연맹의 관계자 분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해서 개최 유치까지는 아주 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는 압니다마는 지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세계 3대 빅이벤트인데 지금 다소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는 압니다마는 열기가 지역 현장에서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 물론 대구시 당국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또 어디서 들어 보면 대구시 당국과 조직위원회 간에 아주 협력이 잘되는 건가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오해이기를 바라지만 조직위원회의 열의만큼 또 지역 당국이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적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서, 여기 대구시에서도 물론 오셨겠지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예, 와 있습니다. 지원단장이 와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예, 오셨고, 조 위원장님 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몇 가지 육상대회 또 대구 경북 육상대회를 통해서 열기를 또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거기 관해서 어떤 각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조해녕 예, 분위기 침체라는 측면은 애초부터 우리가 육상의 스타 선수가 없고 또 국민적인 열기가 없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는데 과거에 정부의 육상에 대한 지원책도 없었고, 육상이 앞으로 올림픽에서 우리가 주경기장에 태극기를 올려야 될 그런 전략 종목이다라는 그런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걸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저희들 조직위원회가 다 잘할 수 있는데요, 정말 국민적인 열기를 올리는 것,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정부와 대한체육회·육상연맹 등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시와 조직위원회 간에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시장님하고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제가 전임 시장이고 현 시장님을 제가 모시고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지원단하고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들 간에는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앞서고 또 서로 전문성에 관한 의견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실무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런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저희들은 전폭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잘해 가고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예, 잘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다른 조직위원회 관계관 여러분들하고는 또 추후에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그러면 열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시 한번 격조 높은 질의와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아까 제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 위원 두 분께서 해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속기록을 받아 봤습니다.

제 발언의 취지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다만 그 얘기를 하면서 4년 전에 우리가 실패한 경험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현지에 날아가서 진짜 열심히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누군가가, 본부에 있는 누군가가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고 또 민도 열심히 하고 정부에서 열심히 해서 거의 유치가 확정 단계다, 표 계산을 해 보니까 확정 단계인데 더 이상 민간부문에서 IOC 위원을 접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음이 나면 표결 결과가 거꾸로 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활동을 중지하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제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할 수도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3년 전에도 과테말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점, 그거는 세상이 다 알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속기록에 요 부분, 노무현 대통령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위원장 황우여 아까 제가 속기록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현대자동차의 모 임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과테말라에 가서 현지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정하기 이틀 전에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활동을 해서, ‘다 됐으니까 더 이상 활동하지 마라. 잘못하다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틀 전 활동을 중지했다 그럽니다.” 이런 발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부에서 지시 내용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다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활동을 해서, 다 됐으니까 더 이상 활동하지 마라.……” 이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요?

○권성동 위원 아니지요.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위원장 황우여 아니고, 그런 말의 지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실명이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철회해도 좋으시고 이걸 삭제해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회법이 바뀌어 가지고 삭제가 안 되니까 그런 취지를 부가해서 진술하신 것으로 분명히 속기록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우리 권 위원님 뜻은 본인이 다 그런 것을 취소하고 유감을 뜻하시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전혜숙 위원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우여 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혜숙 위원 저희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기록에 남고 또 국민들이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 위원님께서 정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발언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들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그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삭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본 위원과 신학용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발언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두 위원이 잘못 들었다,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사과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사과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속기록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주어가 뭔지.

그리고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제가 노무현 대통령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지.

○위원장 황우여 우리 국회 관행은, 제가 10여 년 한 취지로서는 지금 권 위원님 정도 말씀하시면 그것이 여러 가지 뜻이 다 함축된 것입니다. 전 위원님이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마감하도록 하고 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간사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신 관계 장관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필요하실 때에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특위는 스포츠를 위해서, 그야말로 국제경기를 위해서 모인 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정신에 따라서 여야도 없고 지역도 없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기대하는 각종 국제대회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짓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스포츠가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로, 경기력이 향상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든 겁니다.

또 오늘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만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이게 유관 장관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위를 만든 겁니다. 기재부장관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장관들 계시면 우리가 또 모셔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차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추후 일정을 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성동	김영진	나경원	신학용
윤상일	이명규	이시종	이정현
이종구	이한성	장윤석	전혜숙
정의화	조전혁	황우여	

○청가 위원(1인)

임영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전문위원	임중호
입법심의관	서도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체육국장	김기홍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위원장	한승주
사무총장	서대원
집행위원	김동대
기획홍보국장	김한곤
유치교섭국장	권영대
유치신청서준비국장	김재범
지원국장	함영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상면
사무총장	박종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조해녕
사무총장	문동후
기획조정실장	최삼룡
육상대회지원단장	정하영
대한육상연맹	남상남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충주시부시장	이중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사무총장	배종신
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경기본부장	양의모
행사본부장	양홍석
사업본부장	임만규
방송준비단장	이규창
대회지원본부장(인천시)	이정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공동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의화
사무총장	김윤석
기획조정본부장	홍기남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기획처장	김남수
홍보협력처장	우상일